

지역 매 아리

고창동학농민혁명 '녹두교실' 운영

고창군이 18일 고창군동학농민혁명 스타디움 그룹 '녹두교실'에서 유적지 탐방을 운영했다.

농민들의 봉기를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일제는 그들 조선왕조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무시한 채 '동학란'으로 폄하되고 세기가 바뀌고 나서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존중받기 시작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녹두회원 30명이 참여한 이번 녹두교실은 금산군 제암면(구 제원역), 공주시 우금치 전적지, 논산시 황화산성 등 동학관련 유적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호 주변 청결활동

정읍시는 지난 19일 입암후계자협회와 정읍산립조합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장호 주변에서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비닐과 빈 병 수거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벌였다.

3개 기관·단체의 공동 청결활동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내장호 주변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정읍 입암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보건소, 미취학 아동 구강교육

"세 살 알치 버터이 백 세까지 튼튼한 치아를 책임집니다!"

정읍시보건소가 이달부터 미취학 아동들의 구강 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소는 참여를 희망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소도포와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올바른 칫솔질 요령 등을 안내해 아동들의 적극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해 아동들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불소도포 시술은 아동들의 충치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술을 통해 충치 세균에 대한 내산성을 높임으로써 40~70%의 충치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릴 때 올바른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옥정호·도원천 수질 관리 만전

## 정읍시, 협업 TF팀 구성

정읍시가 협업행정을 통해 상수원인 옥정호와 도원천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시민에게 변함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 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주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과, 건설과, 예곡축산과, 농축산과 5개 부서가 참여하는 '옥정호·도원천 상수원 관리 협업 TF팀(이하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2월 주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과, 건설과, 예곡축산과, 농축산과 5개 부서가 참여하는 '옥정호·도원천 상수원 관리 협업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그간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3차례의 협의회의를 갖고 상수원 관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옥정호와 도원천 상수원 수질 보전 대책에 따른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정읍시의회 옥정호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과 관련, 부서 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한 부서 간 업무 공유와 협업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수원 환경 정화 활동과 오염원의 강력한 지도단속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상수원 주변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 정비와 함께 오염원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질 보전과 환경 보호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내년 도민체전 성공 개최준비 박차

## 도민체전 T/F팀 발족

고창군이 내년 4~5월경 3일간 고창군 일원 38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북도민체전대회'(이하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오는 21일 계획단계로 도민체전 T/F팀을 발족하고, 오는 7월 준비 및 본격단계에 총 6명을 확보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민체전에는 육상, 축구 등 38개 종목에서 각 시·군 선수단 50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특히 이 대회는 2001년(제38회)과 2010년(제47회)이후 3번째로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대회를 통해 6만 고창군민과 140만 전북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만남과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구성되는 도민체전 T/F팀은 고창군체육회 가맹종목단체와 전라북도체육회 가맹종목단체회의를 통해 최종판단체 경기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또한 보수공사를 동시에 진행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및 실무

추진단을 이달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이 구성되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역할 분담을 마치고, 체전 개최 전까지 정기적인 보고 회를 통해 세부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체육청소년사업소 박생기 소장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며, 어느 곳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읍·면에 이르는 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대회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어린 참게 7만마리 방류

고창군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토산어종의 보호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한 일원에 참게 7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아산내수면어업계, 주민 등이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참게는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한 종묘로, 3월에 구입한 어미참게에서 산란시켜 유생단계를 거쳐 갑각 0.7cm 크기 처기로 성장시킨 후 질병검사를 마친 건강한 우량 품종이다.

민물에서 자란 참게는 가을철 산란

을 위해 바다로 이동하여 월동하고, 이듬해 연안바다에서 산란하여 부화한 유생이 민물로 다시 올라와 성장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군은 2004년부터 하천 및 저수지에 내수면 어종인 뱀장어, 참게, 붕어, 동자개 등을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귀농 희망 도시민 체험교육

## 28명 대상 현장실습

부안군이 부안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8명을 대상으로 품소문화원에서 실시했다.

환영사에서 이연상 부안군 부군수는 "귀농귀촌 정착지는 비전이 있는 곳으로 해야 하고, 자연과 사람과 행정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부안은 귀농창업과 귀촌거주지로 가장 각광을 받는 곳이라며, 부안군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착"을 권유했다.

예비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부안으로 귀농정착전 지역에 대한 사전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책소개, 성공사례, 귀농농가견학, 간담회, 농기계실습, 예비창업 발표회 등 다양한 교육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귀농설계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론중심의 귀농귀촌 교육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귀농귀촌인들의 정책제언에 의해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지금까지 5회차 운영으로 부안군의 차별화된 특색을 살렸으며, 귀농귀촌 최적지를 지향하는 군정방침에 의해 읍면장들과 지역의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방문하여 격려했다.

교육생 김순기씨는 "정착희망 지역의 실습교육을 통해 좋은 귀농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로, 귀농실천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노하우 등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지자체 대표와 읍면장이 교육장을 방문하여 지역홍보를 하는 신선한 충격 경험이었으며 반드시 부안으로 귀농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이 귀농귀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8명을 대상으로 품소문화원에서 실시했다.

# 고창군, 2020년도 균특회계 신규사업 발굴 안간힘

고창군이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예산실무자와 관계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편성지침 및 2020년도 균특회계 시도자율권형성사업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균특회계 시도자율권형성사업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다.

군은 군정발전예 목표에 맞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균특회계 신청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

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9년도 균특회계 구조 및 대상사업, 예산안 편성절차, 예산안 편성시 유의사항 등 담당자들의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2020년도 균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고창군의 대응과 사전 행정절차 등을 설명했다.

기획예산실 김이종 실장은 "2020년도 균특예산 요구 이전까지 신규사업은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균특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90  
www.gangsanwine.com